

잡초 되기

김태중 작가가 보여주는 숲은 으스스한 어둠 속에 묻혀 있다. 해질녘과 새벽의 어스름에 숨죽여 있는 숲 속에서, 작가는 인공 조명을 이용해 숲을 어둠 속에서 끄집어낸다. 빛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나무와 풀들의 모습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터져 나오는 인공광에 한껏 상기된 사람들의 표정과 닮아있다. 굳이 숲을, 구태여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들을 마주하며 작가는 무엇을 보려 했던 걸까.

숲에는 모든 생명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혹여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는 순간 숲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농부가 특정 작물의 생육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는 달리 숲은 모든 개체들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비로소 거대한 군집을 이뤄나간다. 한 화분 속에서 두 작물이 뿌리를 섞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숲에 자리잡은 무성한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의 크기만큼의 경쟁을 치러낸 산물이다.

작가는 숲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그들의 소리 없는 경쟁에 참여한다. 태양빛이라는 공동의 이익이 사라지는 밤의 숲에서는 곳곳에서 동식물들의 암투가 벌어진다. 그는 그 안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숲이 내뿜는 적대적인 기운을 고스란히 등에 업은 채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뿌리를 내리듯 땅에다 삼각대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인공광을 임의로 터뜨리며 숲을 위협한다. 숲을 향해 빛을 쏘기 위해 연신 풀을 밟는 발소리는 마치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일종의 의식처럼 들려온다. 사진 이미지로 드러난 숲은 기존의 모습을 상실한 채 이질적인 빛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작가는 태양빛이 사라지거나 돌아오는 순간, 사진을 찍는 순간, 인공광을 터뜨리는 순간의 숲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다져나간다.

촬영은 단순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Foresta>에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삼십여 초의 시간 속에 그가 쓰아대는 빛과, 수풀을 밟는 소리와, 그에 따라 번뜩이는 숲이 있다. 밝음과 어둠의 사이에서 인위적인 빛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숲에 대한 회화적 모사이자, 차연(Differance)적 행위이다. 이는 작가가 숲이라는 거대 생태를 인식하기 위한 시도이자, 낯선 환경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입지를 그려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잡초가 되어 객체성을 생성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숲 속에서 부지런히 사진을 촬영하는 연유일 것이다.

또한 작가는 <Foresta-Reverse>에서 숲의 반대편을 탐색한다. 특정 기준을 두고 야생의 숲에 앞과 뒤의 시점을 부여하는 것은 작가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거한다. 이것은 숲에서 작가 자신의 영역을 가늠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제로, 그저 숲을 관망하던 입장에서 보다 깊숙이 파고들기 위한 시도와 같다. 또한 실제 사진 위에 숲 속에서 인공광을 터뜨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투사하는 것은 마치 작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빛을 이용해 숲을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숲은 하나의 대상이 아닌 작가의 시간적, 공간적 탐구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Foresta - quasi a due>는 <Foresta>를 촬영하기 위해 터뜨린 수십 번의 인공광을 피아노의 음

계에 대입해보는 작업이다. 작곡가 심근수가 작곡한 <quasi a due>는 지정해둔 규칙 안에서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를 이용하여 곡을 만들어가는 독특한 형태의 현대음악이다. 이에 작가는 인공광을 터뜨려 촬영한 두 개의 숲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어둠 속에서 매번 다른 형태로 번뜩이는 숲의 영상은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누르는 건반의 음색과 시간을 매개로 어우러진다. 모두가 숨을 죽인 시간 속에서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그곳엔 한 장의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그에게 있어 숲은 더 이상 절대적이거나, 모호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제 다양한 생각과 방법으로 숲의 생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작가가 숲을 두고 끈덕지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저 숲이라는 대상에 대한 접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특이성을 생산해내는 과정의 선상에 있다. 사실상 숲에 잡초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숲의 생태를 구성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그는 숲에서 잡초이자, 또한 잡초가 아닌 모습으로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어 간다.

큐레이터 정 효 섭